

‘사라진 WBC의 4강 신화 주역들과 떠 오른 새별’

지난 26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제 2회 WBC 2차 엔트리 32명을 발표했다.

마운드 쪽·우를 책임졌던 봉중근(LG)과 박찬호(필라델피아)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WBC 출격 대기 명성을 받았지만, 일본은 격파하고 애너하임 구장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아 깊은 인상을 남겼던 서재웅(KIA)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

제1회 대회에 이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11명. 거센 세대교체의 바람은 해외파 선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06년 WBC 대표팀에는 해외파 전성시대를 일군 박찬호(당시 샌디에이고), 김병현·김선우(“콜로라도”), 서재웅·최희섭(“LA 다저스”), 봉중근(“신시내이”)을 비롯해 이승엽(“지바롯데”), 구대성(“뉴욕메츠”) 등 8명의 해외파 선수가 대거 포함돼 4강 신화를 주도했었다.

해외파 선수 중 다시 엔트리에 합류한 선수는 박찬호·김병현·봉중근·이승엽 4

## 서재웅·최희섭 등 제외

## 해외파·노장들 ‘물갈이’

### ■ WBC 2차 엔트리 명단 보니…

명. 현재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는 박찬호, 이승엽 2명 뿐이다.

국내 무대 복귀 러시가 이어지면서 서재웅·최희섭은 나란히 KIA 유니폼을 입었고, 봉중근은 LG, 김선우는 두산, 구대성은 원 소속팀 한화에서 뛰고 있다. 김병현은 지난 3월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뒤 무직(無職) 선수가 됐다.

그나마 이름을 올린 박찬호와 이승엽의 대표팀 합류도 불투명하다.

박찬호는 강속구가 부활하면서 올 시즌 4승 4패 2세이브, 3.40의 평균자책점을 거두며 다시 한 번 김인식 감독의 부름을 받았지만 팀 내 치열한 선발 경쟁을 앞두고 있어 대표팀 합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상과 부진으로 2군을 전전했던 이승엽도 팀 내 입지가 불안해 출전이 요원하다.

대신 일본 특급 마무리로 급부상한 임창용(야쿠르트)과 ‘주축 트레이너’ 주신수(클리블랜드)가 해외파 선수의 명맥을 잇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해외파의 입지 변화와 맞물려 노장들의 퇴장도 눈에 띈다.

노련미와 기동력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종범·김종국(이상 KIA)·이병규(LG)의 자리에 이용규(KIA)·정근우(SK)·이종욱(두산)이 들어섰고, 박기혁(롯데)·고영민(두산)은 전천후 내야수 김재걸(삼성)을 대신하기 위해 경쟁중이다. 최희섭의 한방은 이대호(롯데)가 책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88동아’ 김광현(SK)·김현수(두산), 한국 야구 마운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신예 윤석민(KIA)·류현진(한화)도 WBC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제 2기 WBC호의 최종명단은 내년 2월 22일까지 WBC 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열린 ‘2008 불우이웃돕기 자선 탁구 축제’에서 현정화, 김택수 감독이 이벤트 시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부산 KTF-전주 KCC경기. KCC 칼미첼(왼쪽)과 마이카 브랜드(가운데), KTF 신기성(오른쪽)이 볼을 향해 달려들고 있다. KTF가 65-62로 승리했다

## 전자랜드 ‘서장훈 효과’ 실감

### 22득점 맹활약…KT&G 제압

### 서장훈 내보낸 KCC는 2연승

권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서장훈을 영입하고 나서 2승1패를 거둔 전자랜드는 또 시즌 KT&G와 접전에서도 2승1패로 우위를 보였다.

1쿼터에서 기습적으로 3점슛을 끝에 끊어 넣기도 한 서장훈은 2쿼터에서 KT&G 김일수(10점)의 밀착 수비에 고전하면서도

4득점에 리バ운드 2개를 잡아내 쿼터 중반에는 12점 차까지 달아났다.

전자랜드는 3쿼터 초반 서장훈이 중거리 슛과 뱅크슛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고 리카르도 포웰(32점)이 골밑에서 펼쳤던 날며 당시 점수를 벌려 나갔다.

전자랜드는 3쿼터를 71-58으로 앞선 뒤 마지막 4쿼터 중반에는 정병국(9점)과 황성인(8점)이 잇따라 3점포를 가동, 점수를 88-66까지 벌리며 승기를 일찌감치 굳혔다. 최희암 전자랜드 감독은 4쿼터에서 서장훈을 아예 벤치에서 쉬게 했다. ‘테크노 가드’ 주희정은 이날 8점을 올려 프로농구

통산 11번째로 6천 점을 돌파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비었다.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대구 오리온스가 김승현(20점)과 크리스 니나엘스(25점)가 45점을 합작하는 활약 덕에 선두 울산 모비스를 88-81로 제압했다.

올 시즌 모비스와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오리온스는 12승 12패로 5할 승률에 복귀, 창원 LG와 공동 5위가 됐다.

부산에서는 전주 KCC가 추승균(14점)과 칼 미첼(19점·10리바운드)을 앞세워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최하위 팀 부산 KTF를 65-62로 물리쳤다. 지난 27일 동부를 잡고 8연패에서 벗어난 KCC(11승 14패)는 이로써 서장훈을 내보낸 뒤 처음으로 2연승을 달렸고 KTF는 7승 18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美 잭슨, 실바 KO 제압

종합격투기 UFC

퀸튼 잭슨(30·미국)이 미국 최대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에서 회전해 편치로 ‘베네랑 파이터’ 반더레이 실바(32·브라질)를 제압했다.

잭슨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UFC 92’ 대회에 출전해 실바를 1라운드 시작 3분21초 만에 KO로 물리쳤다. 이로써 잭슨은 2003년과 2004년 프라이드 대회에서 자신에게 잇따라 TKO, KO 패를 안겼던 실바에 설욕하며 격투기 통산 전적을 29승 1패로 끌어올렸다.

반면 실바는 지난해 프라이드에서 UFC로 이적한 이후 2패째(1승)를 당했고 전적은 32승 1무 9패가 됐다.

英 수영 영웅 사이먼즈

최연소 대영제국 훈장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두 개의 금메달 따낸 영국의 ‘수영 영웅’ 엘리노어 사이먼즈(14)가 역대 최연소 대영제국 훈장(MBE) 수상자로 결정됐다.

영국 ‘선데이 미리’는 28일(한국시간) “올림픽 영웅 사이먼즈가 내년 초 수여될 MBE 명단에 포함됐다”며 “역대 수상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라고 보도했다.

태어날 때부터 뼈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연골무형성증’(일명 외소증)을 타고난 사이먼즈는 지난 9월 13세 301일의 어린 나이로 베이징 패럴림픽 수영 자유형 S6(장애 6등급) 100m와 400m에서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걸면서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다.

/연합뉴스